

불교 호스피스에는 참된 행복의 시작

부산 환희불교복지대 15년간 1600여 봉사자 배출

부산지역 불교 호스피스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부산 관음사 부설 사회복지법인 늘기쁨마을 산하 환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 스님)이 제31기 호스피스를 배출했다.

환희불교복지대는 5월 31일 환희노인요양원 강당에서 '제31기 환희불교복지대학 수료기념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2개월 동안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이수한 34명을 위한 수료증 수여식 및 송광사 강주 도암 스님의 특별강연 '보살도의 실천'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학장 지현 스님, 김행자 두승종합복지관 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수료생들은 지난 3월부터 임종간호와 영적간호, 응급처치법, 노인복지 및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호스피

스 이론부터 학장 지현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수업 '생명의 의미와 가치' 까지 다양한 이론과 실습을 수학했다. 수료식 이후에는 정식적인 불교 호스피스로서 환희노인요양원, 부산대학병원 등 도움이 필요한 여러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학장 지현 스님이 졸업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개근상을 받은 수료생에게는 영주가 주어졌다. 또한 이전 기수의 졸업생들이 환희불교복지대학의 호스피스를 상징하는 연꽃배지를 31기 수료생들의 가슴에 직접 달아주 수료식의 의미를 더했다.

제31기 졸업생 성경애(59)씨는 "어르신들을 직접 보면서 내가 신체와 정신이 건강할 때 주변사람들을



환희불교복지대학은 1999년 불교보건복지대학봉사단을 창단해 31기 졸업생까지 1600여 명의 불교 호스피스를 양성했다. 사진은 31기 수료식 장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앞으로 호스피스로서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살뜰히 모시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환희불교복지대학은 1999년 불교보건복지대학봉사단을 창

다양한 강좌로 지역포교에 박차

광주 마하보리사 창건 10주년 기념법회

도심속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는 마하보리사(주지 원암)가 창건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마하보리사는 6월 2일 대웅전에서 회주 성오 스님, 진우 스님(백양사 주지), 청마 스님(백양사 재무)을 비롯해 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지난 도심포교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하보리사는 2004년 음력 5월 5일(단오)에 원만행 보살의 기부로 회주 성오 스님이 창건했다. 광주 광산구에 대지 450평, 건물 65평(전체 130평) 2층 건물을 지어 시작된 마하보리사는 "유치원을 설립하

고, 도시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도량으로 만들어달라"는 원만행 보살의 창건이념을 실천해왔다. 초대 주지 성오 스님은 지금껏 11번의 불교입문교육과 경전강좌, 지역중·고등학교 장학사업 등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 11월 제2대 주지에 취임한 원암 스님은 사찰 단정봉사를 회향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1년에 2번의 불교입문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한지공예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젊은 층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바뀌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성오 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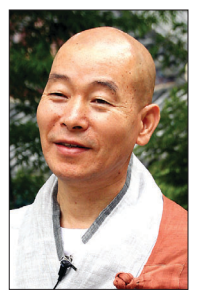
마하보리사 10주년 기념법회 모습

법어를 통해 "광산구는 불교의 불모지로 창건 당시 조계종 사찰이 한 군데도 없었다"며 "부처님의 법감을 하기 위해 포교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생명 돌보는 일은 존엄...사람이 부처"

환희불교복지대학장 지현 스님



사회복지법인 늘기쁨마을 산하 환희불교복지대학과 환희노인요양원을 이끌고 있는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사진)은 어

르신들을 돌보는 것으로 오랫동안 하와중생(下化衆生)을 몸소 행하고 있다. 지현 스님은 호스피스 교육생들에게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생명의 존귀함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 안에서 생명을 돌보는 귀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도 부처님"이라며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함을 항상

당부한다. 스님은 강의가 늘 즐겁다고 말한다. 지현 스님은 "교육생들 앞에 서서 강의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기도할 때만큼 심심 나고 신명나는 뿌듯한 일은 호스피스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생명을 돌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싶다는 지현 스님의 발원 때문일까. 지현 스님은 지난해에 관음사 내 병상 99개를 갖춘 노인요양시설인 '환희노인요양원'을 개원했다. 총 99명이 입소할 수 있는 환희노인요양원은 2011년 국민

건강보험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 받은 만큼 뛰어난 요양프로그램과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일들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염불을 해드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는 것 뿐입니다. 또한, 어떠한 보석과 명예, 권력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분들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으니 생명을 돌보는 존엄한 일이랄까 부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김니영 객원기자

장흥 보림사 제5차 선차아회

수륙무차 영산대재도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문 보림사에서 한국의 선(禪)과 차(茶)가 어울리는 선차(禪茶) 축제가 열렸다.

장흥 보림사(주지 일선)는 5월 31일부터 2일간 경내에서 '제5차 세계선차아회 및 수륙무차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첫날 행사인 선차아회는 도의국사 탄신다례를 기념하는 헌다와 주지 인사말, 축사, 학술대회, 청담전 체험, 다안 감상 등이 이어졌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현봉 스님의 '선차동전의 역사', 최석환 대표(월간 차의 세계)의 '동아시아 선차문화와 보림사의 위상', 박정진 교

수(한양대의) '가지산파의 선창정신', 허홍식 교수(한국한중양연구원의) '삼국사기 차 기록과 원표와 의 관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세월호의 희생자들의 전도를 기원하는 영산대재가 봉행됐다. 영산대재는 시련 이운식을 시작으로 현향(송광사 주지 무상), 내빈소개, 헌화, 발원문 낭독(신도회장 손수자), 법어(원로의원 범홍 스님), 영산대재 1부(대령, 관옥, 신중작법)가 진행됐다. 이어 점심공양 후 본격적인 영산대재가 진행됐다.

원로의원 범홍 스님은 "천도재를 통해 많은 고혼들이 천도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분야별 연수

5월 31일 전북불교회관서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주정기)은 5월 31일 전북불교회관 강의실에서 분야별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114명의 전북지역 포교사들이 동참한 이날 연수교육은 입재식에 이어 사찰문화해설법, 교정교화법, 군포교팀의 분야별 사례발표와 포교원 포교국장 노후 스님의 지역 전법네트워크 구축방안, 윤기중 부단장의 포교사단 정책과 비전, 분야별 평가와 지역단 정책소개, 불교 포교 레크레이션의 순으로 진행됐다.

곽명희 포교사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교를 통해 자비정신을 실천하여 종단의 포교역량과 위상이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은 분야별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다져질 것"이라며 "스스로 내적 성장을 이루어 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은 총 206명의 포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군 포교팀 등 8개 분야에 17개 팀이 지역별로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5월 31일 부산 영광도에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제7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을 5월 31일 부산 영광도서 사랑방에서 개최했다. 오전 중등부와 오후 고등부로 진행된 이번 백일장에는 각각 100여명이 참여해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

간을 가졌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부장 목종스님은 "생명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의 희생과 나눔에 의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나의 생명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 일어난 비극이다. 여기 참가한 여러분은 사회에서 서로 배려해주고 보살피주며 살



부산 생명나눔 백일장 장면

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백일장의 중등등 공등주제는 '세월호'가, 중등등별 주제로는 '그리움', '사랑'이 각각 선정됐다.

김니영 객원기자

응공조계종 동명사서 법제고시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에서 5월 25일 법제고시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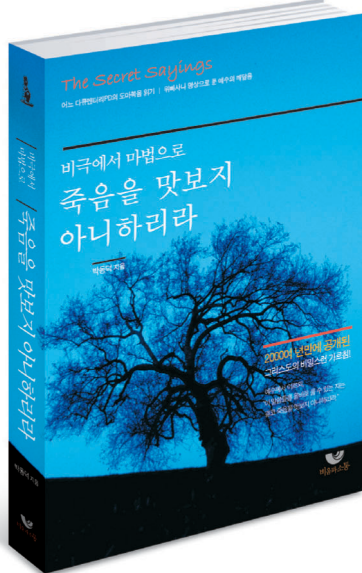
이날 법제고시는 종헌 중법상 고시법을 엄정히 적용해 원칙을 준수시켜야 하려졌다. 경과판과 승남규정

을 엄밀히 적용하고 논문제출,면접 등을 실시했다.

법제고시 위원장에는 법운 스님이 위원으로는 수덕, 동화, 도경, 진승, 법화 스님 등이 맡았다. 위원장 법운 스님은 치사를 통해 "한국불교

종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혁신적인 종지종풍을 이어가는 석가세존의 법맥을 이어온 본 종단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나갈 종단의 기동인 자부심을 갖고, 여법하게 품수 중단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은 신성神性이자 불성佛性이다

"나는 만유 위에 있는 빛이라. 내가 곧 만유라. 만유가 나로부터 나왔고 또 만유가 나에게 이르노라. 동나무를 쪼개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찾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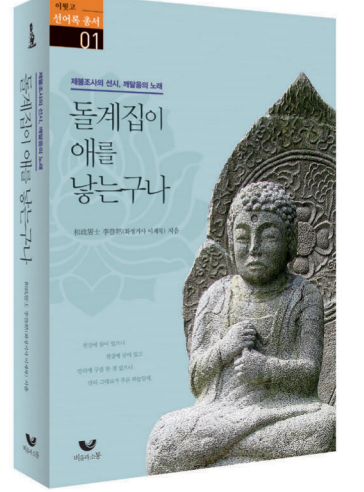
비극에서 마법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박동덕 지음 | 신국판 | 487쪽 | 19,500원

예수의 깨달음과 비전을 담은 비밀 성경 '도마복음' 그의 명상禪적인 가르침을 2,000여 년만에 해석하다

KBS, EBS 등에서 유명 교양/다큐프로그램을 연출한 저자 박동덕 씨(방송프로덕션 '비에마로' 대표)는 2001년 보리수선원에서 위빠사나를 배우면서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왔다. 2010년 여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종일 쓰러져 있다가 의식을 회복한 임사(臨死)체험 후 '왜 돌아왔을까?'를 고민하다가 '도마복음'을 통해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無量光無量壽)이 바로 신성인 동시에 불성임을 확신하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도마복음을 본격적으로 해석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이 말들을 울바로 풀 수 있는 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설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5@daum.net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깎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전법계·열반송·선문답 통해 참마음 깨닫기

재불조사의 선시,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목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칠불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계, 제2부 고승·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시와 선문답들로서 40여년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목 노거사의 역작(力作).

지상 불국토의 발원이 담긴 앙코르 와트 건설한 앙코르 제국의 불자 대왕, 자야바르만 7세

자야바르만 7세, 앙코르 제국의 대왕 소설 앙코르 와트

이형중 지음 | 신국판 | 부분 컬러 | 352쪽 | 15,000원

주캄보디아 대사관 총영사를 역임한 이형중 외교관이 지은 이 책은 자야바르만 7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형식으로 앙코르 제국의 역사와 유적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한 역사·전기소설. 부록에 첨부한 앙코르 왕들의 연대기와 유적 일람표, 앙코르 제국의 영역지도, 시엠립 관광지도와 함께 캄보디아의 유적과 캄보디아인들의 풍속과 삶을 촬영한 사진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역사적인 안목으로 앙코르 와트를 살펴볼게 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5@daum.net